



지구촌 수행열기

“생활·수행 둘 아니다” 세계인의 화두로 확산

● 지구촌 수행문화

“문명은 그 기반으로 삼고 있는 종교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현대인이 가져야 하는 종교는 신(神)이 아닌 법(法)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이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1889-1975)는 ‘문명과 종교’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불교의 수행문화가 최근 몇 년 사이 지구촌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매년 10%씩 증가하는 유류불교의 확산을 두고 종교·사회학자들은 ‘20-21세기 가장 놀랄만한 현상’ ‘이념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 바뀌면서 문화의 축이 서구중심에서 오리엔탈리즘으로 변환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영국불교계는 국내의 600여 곳에 선 수행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1994년 수만 명에 불과

이다. 선과 명상이 ‘물질보다는 정신’ ‘새로운 자유정신’ ‘무한의 안정추구’ 등 시대적 흐름과 코드가 맞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한국불교 미래는 수행에 달려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수행에 관심을 갖는 한국의 일반인들과 불자들은 1000년 이상의 역사, 동북아 불교 문화의 중심축으로서 수많은 선장들을 배출한 조사선에 대해 의외로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 듯하다.

서구사회에서도 조사선의 간화선법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어오고 있는 한국불교 수행에 대한 관심이 크게 진작되지 않았다.

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수행법은 아바타, 법륜공, 마음수련, 도가계통의 단화선원이나 기수련등을 일컫는다. 제3수행법은 수행의 목적이 깨달음이 아닌 단순한 건강에 초점을 두고, 단계에 따라 돈을 받거나 건강을 강조하는 등 불교수행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충분히 검증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은 현대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고립적인 방법을 고수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과학화되고 표준화된 수행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구촌의 수행자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시급하다.

미국 UCLA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 교수이며, 순천 송광사에서 수행한바 있는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파란 스님의 한국 선 수행기>에서 “한국불교 스님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 선승들의 생활은 정통 선불교의 값진 모델이 된다”며 한국불교의 수행전통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행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템플스테이(위), 선방 수련회에서 수행중인 외국인들과 재가자들의 모습.

구미 문화코드 오리엔탈리즘에 초점

“불교” 하면 티베트·일본·동남아 거론

“한국선승생활 정통 선불교의 값진 모델”

하린 불자들이 9년 사이 60~7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독일도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도시마다 불교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교에 대한 관심이 주류사회에서 큰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미국도 불교인구가 2백만명을 넘어섰고 있으며, 불교센터 및 사원은 1천70여개, 불교를 가르치는 대학이 3천여 곳에 이른다.

특이한 것은 서구사회의 불교는 수행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젊은층과 지식인 계층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이제는 미국과 유럽인의 입장에서 ‘수행’ 하면 왜 티베트와 일본, 동남아시아 불교를 지칭하는지를 주목해야 하며, 또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최근 한국내에서 제3수행법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을 간화선 수행법의 한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출·재가 할 것 없이 불교의 개념을 여러 형태로 차용하고 혹은 변용하고 있는 이른바 ‘제3수행법’에서 서히 물러들고 있는 것도 현실을 반

● **간화선 체계화 통해 세계로**
한국불교가 간화선의 전통을 이어가고, 변장시키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시대에 맞고, 오늘날의 언어로 된 ‘수행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간화선의 전통에 스승과 제자간의 문답-점점 시스템을 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대화·실용화를 위해 △문답식 법회와 정기점점 △실천 수행 방법론 제시 △수행방법의 표준화 수업 △수행법의 대중화 △수행풍토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 불교 수행방법과 모습을 지

특별기고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
철학박사

올바른 성찰없는 명상 수행 인과율 무시, 감각적 추구

8정도 가르침에 대한 성찰 뒤따라야

세계적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비단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참혹한 세계대전과 이로부터 비롯된 냉전 이데올로기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유트라이를 꿈꾸던 지식인들은 역사의 발전이 정의의 승리를 가져오리라는 확신을 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여기’에 당장 천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믿었다.

서구에서 60년대의 신좌파 운동에 가담한 히피족들은 이렇게 해서 탄생했고, 그들은 명상이나 인도나 불교사상에 심취했고 라즈니쉬 열풍을 몰고 오기도 했

다. 그러나 한편 지식의 감각에서 탈출하려는 운동은 상업주의나 소비자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70년대의 뉴에이지 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양식은 20세기 초에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인형을 불타나게 사들인 것처럼, 상업적이고 주술적이고 심각한 것은 그들의 지식이 불행하게도 영적인 지식과 미술을 혼동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을 두고 폴 퍼셀이 말한 것처럼 “과장으로 부풀리고 거짓으로 근사하게 치장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성공할 수 없는” 문화적 현상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 환경오염과 생태주의와 영성주의의 등장, 거트된 지식의 감각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지식을 회복하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전한 명상수행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의 등장, 그리고 상업적인 사이버 문화의 등장으로 인과율을 부정하는 미술적 문화의 세계로 깊이 빠져든다. 명상수행은 영성운동에 주어 진 기회와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대부분의 명상은 결정론적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도피하려는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인과율을 무시하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오류가 나타나는 것은 명상수행의 전 단계로서 부처님이 제시하는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사유 그리고 올바른 언어와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에 대한 성찰이 없이, 명상수행을 논하거나 명상의 단계로 진입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백양사에서 제18회 백양산풍속제가 열립니다.

www.baekyangsa.org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

제1부 헌식(오후1시)
○ 보살계법회
○ 법어

제2부 국악공연(오후3시)
○ 피리(덕현스님)
○ 승무(김주연)
○ 판소리(한승식)
○ 살풀이(진유림)

고불총림 백양사는 서기 632년(백제 무왕 33년) 여환선사께서 창건하신지 어언 1371년의 성상이 되었으며, 고려 때 중연선사, 각진국사 등의 중창을 거쳐 만안대종사에 의해 근대 최초의 총림 도량으로 된 한국의 명찰입니다.

이에 백양사에서는 대덕큰스님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보살계란 무릇 대승보살이 받아 지녀야 할 계율로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서, 보살이 오늘날과 같은 현실사회에서 구현해야 할 실천덕목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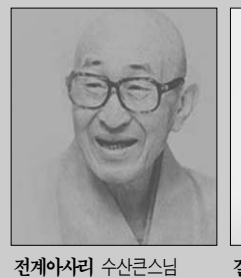
이와같이 보살계는 재가 출가의 구별없이 수지하고 실천해야 하는 대승불교의 불성계(佛性戒)로서,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국왕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보살계를 받아왔으며, 억불숭유(抑佛崇儒)의 시대라 일컫는 조선시대에도 수많은 불자들이 보살계를 받아왔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금강계단에서는 게이념을 맞아 이같은 역사와 전통을 오늘에 되새겨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하오니 불자님께서는 무루 동참하시어 무량복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古佛叢林白雲堂** 주지 두 백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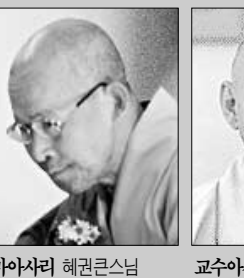
수계일시: 불기 2547년 10월 26일(음력 10월 2일) 일요일 오후 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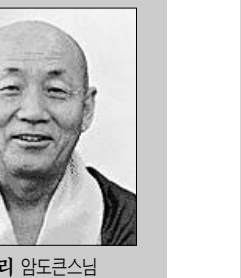
주행 서승대종사



전개사리 수산큰스님



감미사리 해권큰스님



교우사리 일도큰스님

동참금: 30,000원 접수처: 백양사 중무소(061)392-7502 FAX 392-2081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